

# '94년도 제1검정소 종돈능력 검정 결과



정 숙 근 소장  
(본회 제1검정소)

## 1. 머리말

지난해의 양돈업은 총 사육두수 600만두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물가안정을 위하여 25,000톤의 돼지고기를 수입 보충하여 정부의 수급 물량조절에 끌려다녀야만 하는 한해였다. 수입 돼지고기가 없었더라면 수입개방을 대비하기 위하여 투자한 각종 시설 투자비용을 다소나마 보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이나 종래의 양돈업과는 다른 양상으로 이끌려나오고 말았다.

완전 수입 개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있을 수 있는 정책이라고 긍정은 하면서도 얼마남지 않은 수입의 완전개방을 앞두고 투자에 대한 회수는 언제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에 대한 아쉬운 감이 적지않다. 종전과

는 달리 떨어지고 있는 양돈업의 수익성은 과거와 같이 사육두수를 끌어 올리질 못하고 오히려 감소되는 반대현상을 가져오고 있는 감도 주고 있다.

이같은 불안한 상황속에서도 많은 Hybrid종돈이 수입되어 한때 종돈업계를 긴장시켰으나 종돈의 개량의욕은 예년에 못지않은 열의를 보여주어 종돈의 능력 검정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를 보고한다.

## 2. 종돈의 능력 검정 결과

### 가. 출품 및 심사합격(경매)두수

31개 종돈장에서 2,300두가 출품되어 2,183두가 검정을 마칠 수 있었으며 검정 종료 두수 중에서 61.0%에 해당되는 1,

332두가 심사에 합격되어 경매되었다.

1993년도에 검정시설을 확충하였기 때문에 1993년도에 비하여 540두(30.6%)가 더 출품되었으며 따라서 검정 종료두수는 534두가 많아졌고 경매두수도 243두가 증가하였다. 경매된 두수는 요크셔종이 610두, 랜드레이스종이 399두, 듀록종이 318두, 햄프셔종이 5두였으며, 이 중에는 수퇘지가 961두(72.1%), 암퇘지가 371두(27.9%)였다.

〈표 1〉 출품, 검정종료 및 경매두수  
(단위 : 두)

연도	출품두수	종료두수	경매두수
'92	1,618	1,562	1,004(64.3%)
'93	1,760	1,649	1,089(66.0%)
'94	2,300	2,183	1,332(61.0%)

( ) 내는 종료두수 대 경매두수 비율

### 나. 종돈의 능력

1994년도 검정종료돈 2,183

두에 대한 품종별, 성별 능력검정 결과는 <표 2>와 같다. 일당 증체량에서 4개 품종 평균은 수 돼지가 919g으로서 듀록종만이 3.6%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기타 품종은 모두가 평균 증체량보다는 1.0~8.1%가 떨어지고 있다. 등지방층은 일당증체량이 좋았던 듀록종이 암·수돼지 공히 다같이 두꺼웠으며 사료 요구량 및 90kg도달일령에서도 증체량이 많은 듀록종이 우수한 편이다. 선발지수치는 요크셔와 랜드레이스종이 암·수

공히 우수한 것이나 경매가격은 주요 부계품종인 듀록종이 가장 높았으며 암·수돼지간의 가격차이는 암돼지가 수돼지보다 평균 14.1%가 낮았고 요크셔, 랜드레이스 및 듀록종에서 각각 23.3%, 13.4%, 39.7%가 적은 결과이다.

#### 다. 우리나라 종돈능력의 변화

1994년도 검정종료돈의 품종별 검정결과에 의거(<표 2> 참조) 1984년 이래 연도가 진행됨에 따라 전 품종을 통합한 우리

나라 종돈능력의 연도별 변화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당증체량(<그림 1>의 ②)은 1984년 이래 1988년까지는 연도의 진행에 따라 900g대에서 870g까지 떨어졌으나, 1988년 이래 1993년도까지는 870g에서 다시 940g대까지 증가하였다. 이같은 일당증체량의 연도간 증가 추세는 1993년도를 정점으로 1994년도에는 919g으로 떨어지고 있으며 등지방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형질에서 1993년도에 비하여 떨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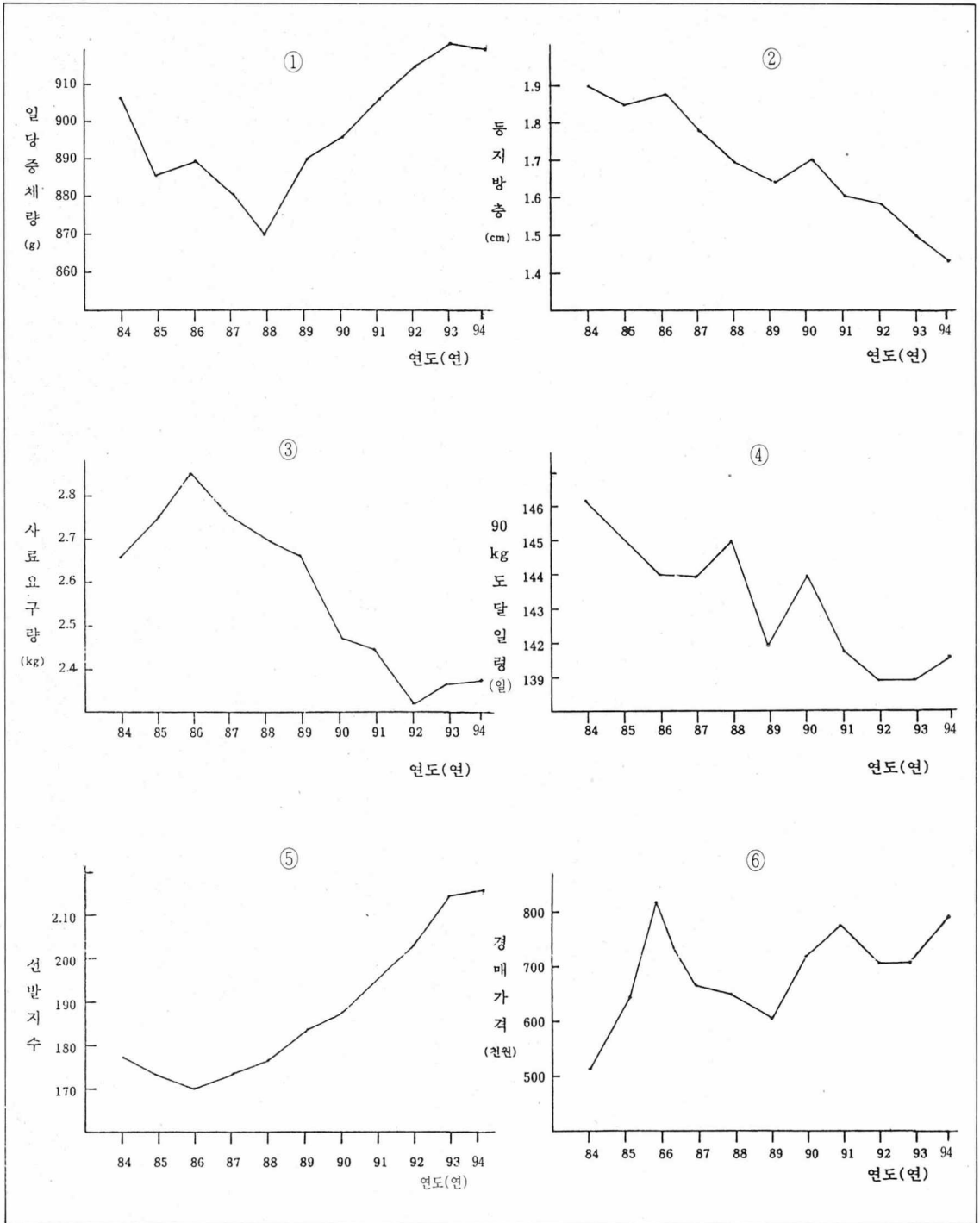
<그림 1>에서 보는 바와같이 전체적인 돼지의 능력이 대부분의 형질에서 전년도에 비하여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1994년도와 1993년도 검정성적의 월별 변화과정을 비교하여 보았다.(<그림 2> 참조)

<그림 2>는 전 품종을 통합한 각 형질의 월별 변화를 1993년도와 1994년도를 비교 검토하여 볼 수 있도록 그려본 것으로서 그림중 검은 색칠을 한 부분이 1993년도보다 1994년도가 우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점선으로 되어있는 부분은 반대로 1993년도 성적이 우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검은 색 부분의 면적은 점선으로 된 부분의 면적보다 월등하게 적

<표 2> 검정 종료돈의 품종별 능력

형 질	성 별	품 종				계
		Y	L	D	H	
일당증체량 (g)	♂	902 (707)	909 (437)	952 (481)	863 (6)	919 (1,631)
	♀	866 (318)	880 (205)	864 (28)	-	871 (551)
등 지방 층 (cm)	♂	1.37 (707)	1.32 (437)	1.66 (481)	1.59 (6)	1.44 (1,631)
	♀	1.46 (318)	1.38 (205)	1.74 (28)	-	1.45 (551)
사료요구량 (kg)	♂	2.36 (707)	2.41 (437)	2.39 (481)	2.49 (6)	2.38 (1,631)
	♀	2.49 (318)	2.54 (205)	2.59 (28)	-	2.51 (551)
90kg 도 달 일 령 (일)	♂	144 (707)	142 (437)	138 (481)	144 (6)	141 (1,631)
	♀	145 (318)	142 (205)	143 (28)	-	144 (551)
선 발 지 수	♂	217 (707)	217 (437)	212 (481)	202 (6)	215 (1,631)
	♀	206 (318)	208 (205)	194 (28)	-	206 (552)
경 매 가 격 (천원)	♂	760 (707)	712 (437)	869 (481)	706 (6)	781 (1,631)
	♀	583 (318)	615 (205)	524 (28)	-	593 (552)

( )안의 숫자는 두수



〈그림 1〉 우리나라 종돈능력의 변화(상)

다는 것은 1993년도에 비하여 종돈의 능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종돈의 능력이 떨어졌다는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 것이나 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으로 본다.

- ① 지난해(1994)의 혹서로 인한 장애
- ② 검정돈 사료의 품질과 사양관리
- ③ 1994년도 수입종돈의 자질과 수입두수

#### 1) 혹서로 인한 장애에 대한 고찰

일당증체량은 1993, 1994년도와 같이 5월을 정점으로 그후 계속 떨어지다가 1993년도에는 6월 이후에는 거의 평행선을 유지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1994년도에는 9월까지 계속적으로 급하강하여 840g대까지 떨어졌다. 1994년도 일당증체량의 계절에 따른 월별 변화모양은 1993년도 월별 변화패턴(모양)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50년이래 처음 겪었던 혹서로 인하여 돼지의 성장에 많은 영향을 받아서 일당증체량이 많이 떨어지게 된 것으로 사료된다. 일당증체량이 많이 떨어지게 됨으로서 사료효율이 떨어지게 되고 즉,

사료요구량(1kg 증체에 소요되는 사료량)이 1993년에 비하여 많아지게 된 것으로 본다.

이상과 같이 일당증체량이 많이 떨어지고 사료요구량이 많아지며 등지방층의 변화는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고 보니 선발지수치는 자연 떨어지게 된 것으로 해석되며 지난 해의 모진 더위는 돼지의 성장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 2) 사료품질 및 사양관리에 대한 고찰

다른 한편 사료의 품질과 사양관리라는 견지에서 검정성과의 관계를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1994년 3월초 사정에 의거 능력검정 사료의 공급회사를 바꾸었던 것이며, 공급회사를 바꾸었다 하더라도 사료배합비율은 종전과 같았다. 따라서 회사간에 배합사료의 원료공급상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간의 부작용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예상했던 것이나 모든 검정돈에 같은 조건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결과의 우열 판단에는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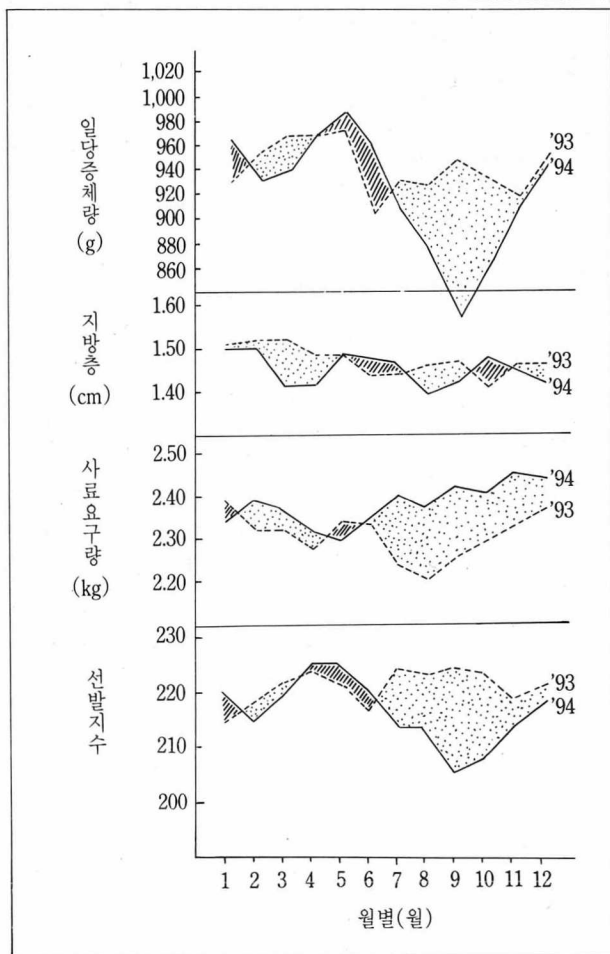
〈그림 2〉에서 보는 바와같이 검정사료의 공급회사를 교체하고 1개월 후에 해당되는 4월부터 7월까지의 모든 형질에서

1993년도 보다 1994년도에 우월하였던 것이 7월 이후에는 계속 나빠지고 있다. 7월 이후에 나빠졌다는 것은 주원인이 계절의 혹서로 인한 것이라고 해석하더라도 일당증체량의 떨어지는 정도가 너무나도 컸다는 것은 사료의 품질 및 사양관리와 같은 요인이 같이 작용했으리라는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추리되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사료공급에 있어서 사료공급을 시작하여 공급초기에 해당되는 3개월간에는 전년도 성적보다는 우월하던 것이 급격히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금후의 기추를 보면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되었다.

사료의 품질이외에 사양관리 여건에서 야기되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나 같은 사람, 같은 방법에 의거 사양관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성적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 3) 수입종돈의 자질과 수입두수에 대한 고찰

1994년도에 수입된 종돈은 1,200두 정도라고하며 이같은 수입두수는 예년에 비하여 적은 두수는 아니다. 그런가하면 우리나라 양돈인의 종돈에 대한



〈그림 2〉 '93, '94년도 형질별, 월별 능력의 변화(↑)

자질에 있어서의 중요성은 어느때 보다도 고조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자질이 떨어지는 종돈을 수입하면서 종돈 수입업의 영입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다.

좋은 종돈에 대한 소유욕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바 없고 수입개방을 눈앞에 두고 있는 현 처지에 종돈수입은 거의 개방상태에 있는 현실에서 능력이 떨어지는 종돈을 입식하려는 종돈장은 없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예년보다도 자질이 떨어지는 종돈이 수입되었다고 보

기는 어려운 것이다.

더구나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4월부터 7월까지의 종돈의 능력은 1994년도가 1993년도 보다 우수하였기 때문에 종돈으로 인하여 능력이 저조하여 졌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본다.

### 3. 맺는말

1988년이래 계속적으로 상승 일로를 걷고 있던 우리나라 종돈의 능력은 1994년도에는 하향국면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이같이 종돈의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원인은 우리 나라에서 종돈의 능력이 한계점에 이른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논리적인 검토가 있어야 하겠다.

우리 나라 종돈의 능력을 외국의 종돈능력과 비교해 보면 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까운 장래 어느때에 가서는 종돈능력의 한계점에 이르러는 것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능력의 한계점에 이르게 되면 대체적으로 종돈의 능력은 평형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 논리이기 때문에 능력의 평형상태에 이르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1994년도에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종돈에 의한 유전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하기 보다는 환경요인 즉, 사양관리 여건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본다.

특히 1994년도 하절기의 장기간의 혹서로 인한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며 다른 한편 검정사료와 사양관리 여건이 작용했으리라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금후 일정기간의 결과를 지켜보면서 대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